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월 장미대선 맞춰
임상병리사 위한
정책 추진 박차

02 FOCUS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개혁은
「다학제 협업 존중」이다

03 INTERVIEW

남원의료원장
오진규 회원 인터뷰

제509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한

디자인 서경아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월 장미대선 맞춰 임상병리사 위한 정책 추진 박차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대선이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5월 한 달 동안의 정책 추진 내용을 정리해 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협약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5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KBIZ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주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로 참가해 임상병리사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박홍근·남인순 본부장,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장종태 부분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직능전담제 책임의원이 참석했고 협회에서는 이광우 협회장, 고인철 정무이사,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박준범 정보통신부장, 안영 보험부장이 참석했다.



5월 15일(목)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박홍근·남인순 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분부장, 김윤 부분부장,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장종태 부분부장과 협회 김한규 기획부회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현장의 전문 인력인 임상병리사 역할의 제도적 강화 및 국민건강강화를 위해 △임상병리학 학제일원화 등 보건 의료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 향상 기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서의 임상병리사 역할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 정책 활동 상호 협력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선거대책본부 출범



5월 15일(목)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김한규 기획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선거대책본부는 △임상병리학 4년제 학제일원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내 임상병리사 역할 반영 등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2025년 주요 정책사업이자 임상병리사 직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협약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5월 29일(목)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로 참가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개선과 역할 강화를 제도화하며 상호협력적 보건의료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올바르게 수호하고자 진행됐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기반한 국민건강 정책수립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통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고령화와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통합 돌봄 지원 체계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재정비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 재확립 △현장기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의료기사 등의 체제적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과제 이행에 협의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명옥 직능총괄 부분부장, 최보윤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협회에서는 김한규 기획부회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통해 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고찰 및 이슈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들어가며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피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5월 22일 개최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한 후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규칙에서 어떠한 부분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와 상충하며 임상병리사의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료지원인력(PA)의 정의와 범위

진료지원인력(PA)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별도의 PA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칭이나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업무 범위의 경계 또한 상당히 모호하다. 이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면허체계에 놓인 인력도 적지 않아 임상전담간호사와 같은 직종만을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청회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가 현재 진행되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기에 요약해서 옮겨본다.

이번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범위, 업무범위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과정에 기준이 없이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모두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나아가 면허체계의 틀을 허물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에 깊은 우려가 된다. 먼저 PA 진료지원인력이라는 용어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간호법 제12조 제4항 제2호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난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은 전 세계적으로 Physician Assistant 줄여서 PA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조 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Physician Assistant 단어 뜻 그대로 진료지원인력, 진료지원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보조원으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이 직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적 교육기반 없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격기준은 모호하고 교육과정은 임의적이며 국가의 공적인증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발표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임상경력이 3년 미

만인 신규간호사에게도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담간호사 제도는 의료법 제78조를 근거로 한 전문간호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문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그런데 이와 병렬적으로 전담간호사라는 직역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부실한 검증절차를 통한 의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축시키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격체계 전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신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약 8년 이상의 교육과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전담간호사 제도는 아직 교육과정조차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 검증 절차도 부재한 상태이다. 전담간호사에게 유사한 수준의 의사 보조업무를 허가하고자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줄속으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 전문영역으로 실무경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 따라서 의사 보조업무는 전문영역이다. 그렇기에 충분한 임상 경력과 교육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만큼 의사 주도하에 의사 보조원의 자격 교육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본 의협, 병협, 그리고 간협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을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진료지원업무 교육 주체를 놓고 ‘의사 vs 간호사’의 살바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나가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진료지원업무가 전담간호사 업무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제화가 주요자인 환자인 입장이 아닌 공급자인 보건복지부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의협, 병협, 간협의 목소리만 있고 다른 보건의료직종은 진료지원업무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했다.

PA업무는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속한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간호사업무 범위인데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서 법제화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앞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이 정해지는 시점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와 중첩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PA로 활동 중인 진료지원인력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공백으로 임상병리사들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생리기능검사실, 특수검사부에서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제화시키는 중장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임상병리사 출신 오진규 남원의료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2024년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보건의료성과보고회에서 기관표창 3개, 개인표창 2개 등 5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5년 연속 'A'등급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남원의료원의 수장 오진규 원장이 바로 임상병리사 출신이다.

오진규 원장의 리더십 아래 운영되고 있는 남원의료원을 찾아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남원의료원에 재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제16대 원장 오진규입니다. 남원의료원에 1989년에 입사하여, 정규직은 1990년에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공공의료사업팀장, 2012년 관리부장, 그리고 2023년에 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Q. 임상병리사에서 병원 행정/경영 분야로 전환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임상병리사 출신으로서 조직을 운영하며 갖게 되는 강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2005년도 의료기관 평가를 계기로 병원 행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평가는 행정 파트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의료기관 평가가 도입되면서 의료 파트에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 파트와 행정 파트가 서로 평가를 말지 않으려고 미루다 제가 임상병리 편람, 지침서를 만들고, 고정자산 대장관리 시스템을 만든 게 계기가 되어 그 당시 집행부의 권고로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200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의 책임을 맡아 전체 기관 중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이 계기가 되어 평가가 끝나고 공공의료사업팀장으로 행정에 첫 발을 댈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 한 손에 병원 시스템이 들어오더군요. 많이 신기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전혀 행정을 모르는 저에게 그 당시 집행부에서 뭘 보고 책임을 주셨는지 식은땀이 난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임상병리사가 행정이나 의료에 쉽게 접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기회만 된다면 타 직역에도 도전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Q.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병원 조직 내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임상병리사가 도전해볼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의 사례처럼 병원 행정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임상병리사인데 그걸 왜 해?'라기 보다는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 행정 파트와 의료 파트는 서로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심합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는 의료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고 행정 부분도 노력하면 가능한 영역이라 조금만 노력하고 이해하면 중간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임상병리사가 아니고 타 직종이었다면 현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병원이나 실험실에서의 임상병리 업무가 본연의 우리 업무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타 직역에서는 AI를 이용한 스마트 진료, 병동, 차트, 재고관리, 디지털 전송, 영상 판독, 로봇 재활치료 등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이 법률이나 학교 교과목에 자기들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산업재해로 인해 감염전담간호사와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현장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듯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감염전담팀에 임상병리사가 포함되고, 보건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편성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Q. 남원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의료원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매스컴 등 여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은 인구 7만 정도의 농촌에 있습니다만 남원의료원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각종 평가에서 항상 최고입니다. 적게는 35개 지방의료원, 적십자 포함하면 40개, 공공병원 175개 중에서 항상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필수 의료를 수행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심혈관계 전문의 2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70개 권역 중 골든타임 내 환자의 생명을 살린 중증도보정사망비가 전국 70위(생존율 1위)입니다. 또한, 4월부터는 왕진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24시간 분만, 인공신장실, 음압격리병실,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을 6월 1일 개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합니다. 지리산 동부권의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에서

남원의료원은 최후의 의료 보루입니다. 37명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400여 임직원은 '공백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하는 의료원'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과 따뜻함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Q. 의료원장으로 부임하시고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저는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2025년 코리아트렌드 키워드인데 일상 속의 행복이거든요. 야근 많이 하지 않고, 공부도 하고,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개인 역량을 극대화하며 일상 속의 행복과 행운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임직원들이 개인의 행복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우리 의료원에서 받는 크고 작은 평가가 약 37개 정도 됩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받는 평가에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600여 개 지표를 선정하여 평상시 관리할 수 있는 BSC 평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병원이 그동안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병원 임직원 개개인은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 휴식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025년 중점 사업으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서의 임상병리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돌봄서비스에서 임상병리사가 현장검사를 통해 빠른 검사결과를 도출한다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정책은 정부 차원 자체에서 보면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돌봄을 화두로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 약 30개 정도 있으며, 2022년도에 1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지방의료원도 포함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의료원도 남원시와 같이 4월부터 보건복지부의 퇴원 환자와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재택을 통한 POCT 검사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재택치료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확인하며 재택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 임원 및 관계자 분들께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고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병리협보 독자이신 임상병리사 선후배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상병리사 선후배님들께 '발굴하고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며 또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관리부장이 되고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원장이 되고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행정과 의사, 간호사 영역에서 임상병리사인 저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협회 또한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출신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에서 심전도, 채혈, 초음파 검사 등은 우리 영역이니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타 직역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동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로 만드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불행한 것은 없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아보하처럼 매일매일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안전한 일상에 만족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507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5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21명, 총원 45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킥오프 회의 진행, 2025년 제508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제185차 정기이사회 및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개최 완료에 따른 보고, 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1기 예정 부가세 납부,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예산 지급,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제63회 울산 종합학술대회 경과 보고, 홈페이지 초록 및 발표파일 접수 시스템 개선, 시도회 심포지엄 운영 안, 연구 용역과제 계약 보고 건, 제3차 학술부 회의 ▲교육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무국 회의, 제2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제3차 세포전문병리사 인증 TF 회의, 제1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국제부 제74회 일본의학검사학회 참가의 건, 제47회 태국학회 참가 예정의 건, 제63회 울산학회 홍보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4월호 발행의 건, 매경 에이지테크 포럼 협찬 및 참가의 건, SNS 관리,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4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정무부 장종태(대전 서구갑)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간담회),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찬조금 지급의 건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의 건, 공익신고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의 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3차 보험부 회의 개최를 진행했고 별도의 안건 심의, 의결 없이 제507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2025년 제74회 일본학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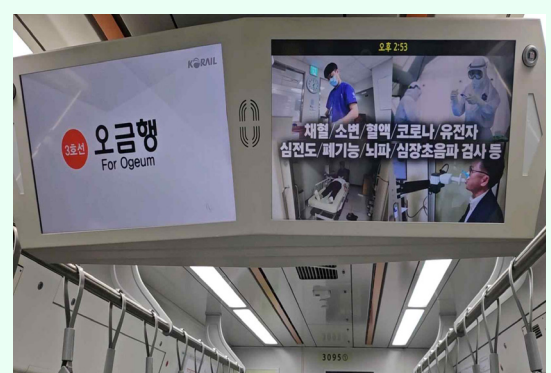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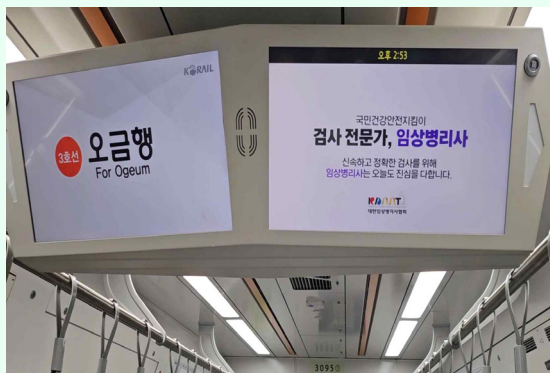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5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2025년 제74회 일본학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회에는 이광우 협회장, 이도왕 공보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 포함 총 45명이 참가했다.

협회 대표단은 한일대표자회의, 한일교류공로자회의를 통해 양국 협회의 안건을 다뤘고 학회에 참가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IFBLS 2026은 2026년 9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일본 치바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국민 임상병리사 홍보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하철 광고를 통해 대국민 임상병리사 홍보를 실시한다. 협회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인천 1호선 열차 내와 인천 1호선, 2호선 역사 내에 20초 분량의 임상병리사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며 임상병리사 직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쓴다.



홍보 동영상에는 채혈, 소변, 혈액, 코로나, 유전자, 심전도, 폐기능, 뇌파, 심장초음파 등 각종 검사는 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협회는 이번 지하철 광고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임상병리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 의료 체계의 중심은

임상병리사

2025 KAMT ULSAN



일시 2025년 9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울산광역시 유에코



주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후원** 울산광역시

2025년 9월
20(토) ~ 21(일)
울산학회에서
만나요!

제63회
종합학술대회&국제컨퍼런스

9월 20일(토)~21일(일)
울산유에코

홍보동영상 바로가기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연자 공개 모집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구연 발표자를 모집한다.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국제 및 국내 심포지엄 구연이 진행된다. 연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amt.or.kr/news/notice_view.aspx?brdId=135017)

● 연자 공개 모집분야

	국제 심포지엄	국내 심포지엄
주제/분야	Asia's Evolving Landscape in Medical Technologists :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in Adapting to New Technologies and Challenges in Asia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생리기능검사 등 임상병리학 및 보건 의료 관련 혁신기술
발표시간	20분	25분
발표언어	영어	한국어

● 접수안내

접수기간	2025년 5월 20일(화) ~ 6월 20일(금) 23:59
제출서류	- 발표 제목이 포함된 발표요약문 (국제심포지엄: 영문 / 국내발표: 국문, 300단어 이내) ※ 심사 후 선정자에겐 초록제출 및 구연발표 안내 사항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자 이력서 - 발표 유형 명시 (국제심포지엄 / 국내 주제발표 중 택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amt@daum.net - 이메일 제목: [발표유형_성명] (예: 국제심포지엄_홍길동)

* 선정 결과 안내: 2025년 6월 27일 (금) 예정 (개별연락)

중앙회 동정

- 5월 7일 제3차 보험부 회의
-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 참석
- 5월 9-11일 제74회 일본학회 참석
- 5월 13일 충청북도 중소병의원 간담회
-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정책 제안·협약식 참석 제507차 상임이사회
- 5월 16일 2025년 통합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 발표회
- 5월 17일 중소병의원 공단전문강사 워크숍
- 5월 19일 제4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 5월 20일 제5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5월 21일 제4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 5월 22일 제4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5월 24일 부산광역시 중소병의원 간담회
- 5월 27-30일 제47회 태국학회 참석
- 5월 31일 정보통신부 전산업체 회의

<https://pr.seegenemedical.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신키텐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는 4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수교육은 서울시회 집행부 임원과 1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삼성서울병원 한상만), 분자진단의 이해와 최신지견(서울대학교병원 서명석), 검사실에서의 엑셀(Excel) 활용(서울아산병원 이광호)과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교육으로 아동학대(처벌 및 행정처분), 아동인권과 학대예방(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울산 컨벤션센터 UECO에서 진행 예정인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홍보 동영상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보수교육 출결은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앱을 설치한 후에 생성되는 바코드를 리더기에 접촉해 입실 및 퇴실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했고 스마트폰 앱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회원은 핸드폰 인증번호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확인 후 입실 및 퇴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보수교육 사전등록은 교육일 1개월 전부터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홈페이지(<https://www.kamt.or.kr>)에서 시작되며 2025년 서울시회 보수교육 및 학술제,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회 일정 안내

- 6월 28일**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학술제
 - 시간: 등록 기간: 5월 28일 ~ 5월 29일
 -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 대우호텔
 - 보수교육 4시간
- 8월** 외원문화체험 행사
- 8월 23일** 서울시회 제2차 보수교육
- 10월** 한마음 단합대회
- 10월 25일** 제9차 중소병의원 학술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4월 2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찾아가는 의료버스의 현장검사(POCT)와 직업윤리(강종원), 투석실 감염관리를 위한 혈액투석기 원리와 수질검사 방법(장수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검사(김미영),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병리검사의 해석(조명숙) 등 주제로 진행됐다.

중앙회 행정실무워크숍 및 부산 치과기공사회 체육대회 참석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4월과 5월 중앙회 및 유관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부산시회 집행부는 4월 26일(토)부터 27일(일) YBM연수원에서 개최된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에 참석했다. 또한, 5월 11일(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치산교정운동장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 설립 60주년 기념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에 황원주 회장과 임준택 행정부회장이 참석했다.



2025년 제2차 이사회 개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5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업별 경과보고와 사업 진행상황 및 계획보고가 진행됐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1차 보수교육, 6월 21일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최신 의료정보 공유를 위해 2025년도 상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교육은 '2030 임상병리사 분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대구·경북 지역 임상병리사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6월 21일(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임상검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통 교육으로는 ▲상대가치 점수의 이해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 통합관리 등이 주제로 준비된다. 또한 3, 4교시에는 진단검사의학, 신경생리, 병리 분과별 특화 교육이 진행되며 ▲감염질환의 신속 면역검사 ▲신경전도검사법 이론 및 실습 ▲엑세스를 활용한 정도관리 및 검체확인(스마트병리시스템)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내용이 포함된다.

대구시회는 “이번 보수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임상병리사들이 최신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환자 중심의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수교육은 사전등록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또는 대구시회 홈페이지와 대구시회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등록원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권장된다.

대한임상병리사회 대구시회
2025년 1차 보수교육

주제: 2030 임상병리사 분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공통·진단검사의학·병리학·생리학 4개 분야로 나누어 더욱 깊이 있게 임상병리사의 직무 특화 역량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일시: 2025.06.21(토) 14:00 • 등록기간: 2025.05.22~06.16
- 장소: 대구 엑스코(EXCO)



교육 안내 및 일정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1차 보수교육 실시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로패 수상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는 지난 5월 1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홀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인천의료기사회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I-MEDIT WEEK 2025 “Let's Fly together”(5월 9일~11일)의 일환으로, 기자재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정책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인천시장상: 채희영 회장 △인천시의회의장상: 김미희 재무이사 △국회의원상: 송기선 중앙회 학술부회장이 수상하며 지역사회와 전문 직역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수교육 강의는 △안전한 채혈기법 기초와 부작용 대처방안(서울아산병원 박태화) △상지 혈관초음파 및 채혈: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적용(김영희) △5주기 건강검진평가 길라잡이(인천광역시의료원 서경아) △검사실 운영의 질 관리 준비(이원의료재단 허지연)로 총 457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임상병리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의료기사와 함께 교류하며 전문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5월 9일(금)에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제2차 정책포럼이 개최돼 각 직역의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한 발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시회는 지난 5월 12일(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기부금 나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향후에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임상병리사회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복구 전진숙 국회의원 간담회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5월 10일(토) 광주시회 사무실에서 전진숙 국회의원과 ‘통합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복구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사회 소외 계층의 복지 및 국민보건의료와 관련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이날 서정훈 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회 소개를 시작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통합돌봄지원사업’의 구성원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임상병리사가 필수임을 주장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통합돌봄지원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이야기하며 고령화사회가 돼버린 대한민국의 턱없이 부족한 건강보험예산과 3차 병원 의료중심이 되어버린 현실을 이야기했고, 이어 “예방중심의료와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통합돌봄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업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직역임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정훈 회장은 “앞으로도 통합돌봄지원사업에 필수적인 검사업무에 임상병리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한몸 봉사활동 실시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 임원단 및 회원 36여 명이 4월 5일(토) 대전 서구 장안동(장태산)에 위치한 장애 복지시설인 ‘한몸’을 찾아 거주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회는 봉사활동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봄비로 거주인들과 짧은 산책을 마친 후 화전 만들기, 실내 레크레이션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회에서는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4월 19일(토)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해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164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진단 업체 부스와 더불어 진행됐으며 ▲진단검사의학과의 미래: 박규은(건양대학교병원) ▲검사실의 잠재적 위험요소 관리체계: 권흥만(충남대학교병원) ▲검사실의 안전관리: 한승희(세종충남대학교병원) ▲CBC & ESR 통합솔루션: 이동화(Mindray Korea) ▲중소병원 진단검사실 질 관리향상을 위한 제안: 이성빈(QuidelOrtho)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선보였다. 또한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 교육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중소병의원 정책간담회 실시



5월 13일(화) 오후 7시 성화동 더 라운데이블에서 중앙회 주관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 중소병의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충북도회 집행부와 충북도회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상병리사의 미래전략(중앙회 이광우 협회장)과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고, 이후 자유토론에서 협회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임상병리사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경운대학교 학술제에서 미래 임상병리사 응원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5월 8일(목) 오후 2시, 경운대학교 벽강중앙도서관 5층 콜로키움홀에서 열린 ‘제14회 임상병리학과 학술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고 전공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경북도회는 매년 꾸준히 참석해 미래 임상병리사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이날 조대현 회장과 김민주 행정부회장이 행사에 함께하였으며, 조대현 회장은 학업과 연구에 힘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술 및 실무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박진영)가 4월 19일(토) 오후 2시 경남 로봇랜드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남도회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수교육은 5주기 검진기관평가 진단검사분야 주요 문항해설(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임향아), 현장검사 이해와 실제(전남대학교병원 서정훈), 임상병리사 회원을 위한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불법사례(굿모닝내과병원 제갈석), 임상병리사의 미래 정책방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광우)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로봇랜드 자유이용권과 만원권 간식 쿠폰이 제공됐다.

보수교육 이후에는 경상남도 중소병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중앙회 이광우 협회장과 3명과 경남도회 집행부 2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을 주제로 정책 강연(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과 자유토론을 통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임상병리사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회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임상병리사의 권익 향상과 업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임상병리사와 함께하는 무료검진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5월 9일(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주한라대학교 주차장에서 '임상병리사와 함께하는 무료검진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한라대학교 축제의 일환으로 제주한라대학교 임상병리학과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무료검진센터에서는 혈액형, B형간염항체, 혈당, 콜레스테롤, 폐기능 등 검사를 제공하며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알렸다. 제주도회는 앞으로도 회원 및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5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연구논문 공모 선정 결과

- 연구논문 공고
 - 참가대상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정회원
 - 대한임상검사와학회지(KJCLS) 논문투고 및 게재 예정자
 - 2026년 춘계학술대회 구연 발표자
 - 연구 논문 유형 및 규모
 - 조직세포검사에 대한 연구, 리뷰 등 자유주제 선정
 - 논문 당 3,000,000원
 - 접수 기간 : 2025. 3. 27. ~ 4. 27.
- 연구논문 심사
 - 심사 기간 : 2025. 4. 28. ~ 4. 30.
 - 심사 결과
 - 심사위원 : 본 학회 회장단(4인), 학술부(3인), 간사 및 임원(6인), 조직세포학교수회(3인) 총 16인
 - 심사방법
 - 심사배점 : 기본 점수(75점) + 4개의 평가항목(25점), 총 100점 만점
 - 심사방식 : 블라인드 심사
 - 심사기준 : ①, ②의 방식 심사기준 모두 동일한 심사결과 나옴
 - 심사위원 점수 합계 상위부터 순위
 - 심사위원 점수 합계 상위부터 순위에 배점(6점~1점)부여하여 합계 순위
 - 연구논문계획서 선정 결과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과제 명	결과
송현범	김은나(M.D.)	단일용모막 이양막 태반에서의 태반 혈관 문합 유형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분석	선정
지우현	최상훈	육안검사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과 Gross 양식의 임상적 유용성	선정
김동욱	서진혁, 김은영	E-Cadherin 대체 마커를 활용한 미만성 위암 진단 및 예후 평가	
배문환		디지털 병리의 전환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 변화와 효율성 분석	
김진목	김상일, 전부경, 신혜령	조직검사 박절과정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윤정희		다양한 고형암에서 OCAv3 OCA-Plus 패널의 진단 성능 및 임상적 유용성 비교	선정
김길호	조혜경, 민경환, 공준석(M.D.), 고재수(M.D.)	비소세포폐암 FFPE TMA 기반 후성유전학적 마커의 발현연구	선정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



고려대 대학원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과 정책 MOU 체결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회장 손재형)가 5월 9일(금)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안전융합학과(주임교수 김성욱), 임상검사와학전공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회장 이민우)과 감염안전관리 학술연구 및 정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임상병리사의 감염안전관리에서의 역할과 성장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 수립, 학술연구 방안 모색 및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고자 손재형 회장 및 이민우 임상병리정책포럼 회장 등 양측 임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임상병리정책연구 ▲학술연구 ▲정부R&D 과제 연구 ▲임상병리사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원 ▲교육과정 및 학습교재 공동개발 ▲임상병리사의 권익향상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손재형 회장은 “고려대 대학원 임상병리정책포럼과의 협력으로 선진화된 지식 함양과 현실적인 감염안전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합리적 역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전립선암 무료검진 참여



몇년 전부터 중년 남성 이후의 건강 키워드는 단연 ‘전립선’이라 봐도 무색함이 없다. 전립선비대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거나 혹은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남성암 1위가 전립선암이고 국내 남성암 증가율 1위에 전립선암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몫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 다빈봉사단이 사단법인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전립선암 무료검진 및 강좌’ 협조 요청에 따라 5월 15일(목) 서울 송파구민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표지자(PSA)가 포함된 채혈봉사를 진행했다.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는 30년 전 설립되어 전립선질환의 이해와 예방수칙, 관리방법 등에 대한 홍보, 교육과 조기검진을 통하여 대국민적으로 홍보 및 치료 지원하고 있다. 국내 비뇨의학과 권위자들이 손을 잡았으며 이들 중에는 국내 대형병원장까지 역임한 이들도 속해있다. 현재도 비교적 의뢰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파견된 간호사 등으로부터 채혈을 지원받았으나 채혈 업무에 더 숙련된 임상병리사에게 채혈 업무를 맡기고자 경기도회와 손을 잡았다. 다빈봉사단 소속 심나영(분당제일여성병원), 함승근(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김채원 회원과 보건소 직원이 함께 지역주민 160여 명의 채혈을 진행했다. 행사 종료 후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권유했다.



경기도회는 현재 경기도 전역으로 지역의료돌봄에 관련된 사업에 발을 뻗으며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와의 협업 활동들이 좋은 결실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보건소와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시검진 참여

수원특례시 장안구보건소는 5월 21일(수)부터 11월 7일(금)까지 지역 내 경로당 4곳을 선정해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혈당 체크업! 경로당 건강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임상병리사회와 진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경기도회는 개인 혈당기기 정도관리 및 혈당검사(당화혈색소)를 지원한다.



경기도회는 혈당기기 정도관리를 통한 개인 의료기기의 검사 품질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와 혈액검사를 통한 고령층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관리로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의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안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는 “이번 ‘혈당체크업 경로당 건강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보건소와 민간 의료단체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철 회장은 “전문가의 혈당기기 정도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혈당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정확한 측정은 적절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의료 전문가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이런 협력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회는 “이날 30여 명의 어르신이 경로당을 찾았고 특히 90세가 넘는 노년의 신부님은 은퇴 후에도 평온한 미소로 경로당을 방문한 이들을 반겨주며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경기 남북부로 의료돌봄 협력사업을 확장하며 임상병리사가 앞으로 지역의료돌봄 사업을 원활히 펼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지역별, 거주 형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가 5월 24일(토) 충북 오송 첨단 의료산업단지 C&V센터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준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시간을 할애해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학회의 미래와 비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했다.

강의는 국립암센터 소속 김지나 회원의 임상분과 논문편집사례 분석 및 투고규정’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고, 이어진 일반연제 발표에서는 △핵의학 검체검사의 불확도 요인을 통한 측정불확도 추정(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차연호) △갑상샘전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은 환자의 혈청 Thyroglobulin과 Thyroglobulin Antibody의 간섭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 시약 간 비교(서울아산병원 이선호) △기관간 정도관리 물질 안정화에 대한 보고(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박준모)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우수학술구연상은 ‘핵의학 검체검사의 불확도 요인을 통한 측정불확도 추정’을 주제로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차연호 회원에게 수여됐다.

MATSUNAMI SLIDE GLASS



홈페이지
www.
hyunil-lab.com



쇼핑몰
www.
lab-mate.com

주식회사 현일랩메이트
TEL. 1577.6255 | FAX. 02.332.1974
E-MAIL. support@hyunil-lab.com

HYUNIL + MATSUNAMI

FINE FROST

- 8가지의 다양한 색상 선택 가능
- 대부분의 슬라이드 프린터기 호환

PLATINUM PRO

- Platinum coating
- 면역염색 및 특수염색 시에도 백그라운드 발생 최소화
- 자동면역염색장비 사용 추천

FRONTIER

- Frontier coating
- 접착력이 우수하며, 염색 시 박리 현상이 적어 조직 손실을 최소화

FINE FROST, MAS

- MAS coating
- Matsunami社 특수 코팅으로 접착력이 우수하며, 박리 현상 방지 슬라이드로 추천

FINE FROST, APS

- Aminosilan coating
- 염색 시 내열성과 안정성이 우수



■ 일반 슬라이드 ■ 코팅 슬라이드

ESPO 장비 전용 카세트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6월 20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제508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장종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실시

곽민정 회원 / 전화번호 : 21846

병리협보 첫 장 기사에서처럼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의료기관에서 의무가 아님에도 대부분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항을 폐지하고 예전처럼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한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에 위치한 제가 다니는 병원이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해당 대상 병원인데 저희 병원은 제가 없으면 진료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당국과 협회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수립될 수 있게 의원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에 고생하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박기완 회원 / 전화번호 : 39851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어 검진 실시 기준, 검진기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시행된 것이 2008년으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협회 부회장님의 회의 모두발언과 같이 처음에는 검진 수행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건이 지금은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검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진인원 15명 이하 기관의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모든 검진기관이 임상병리사를 두고 검진 실시를 할 수 있게 하여 검진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소식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김봉찬 학술부회장 보건의날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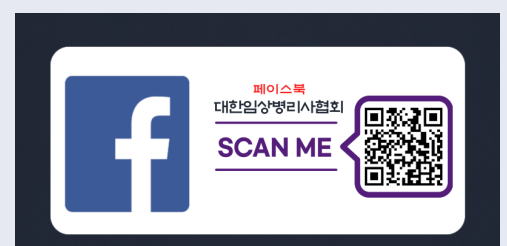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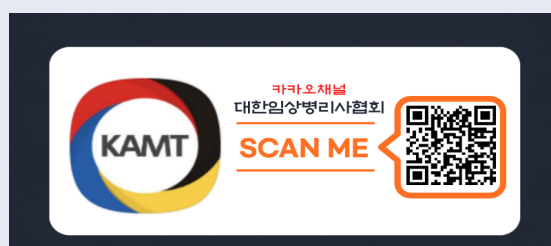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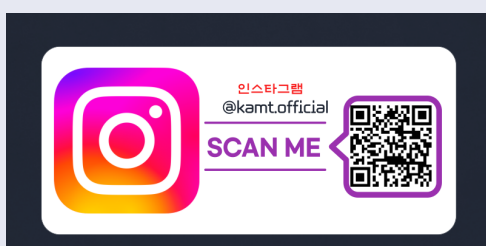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김봉찬 학술부회장이 4월 30일(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제53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김봉찬 부회장은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도민 보건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이번 표창이 수여됐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박익춘 기획정책이사 국제성모병원 총무팀장 발령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박익춘 기획정책이사는 국제성모병원 총무팀장에 2025년 5월 1일자로 발령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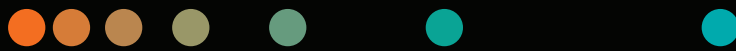


카카오채널 친구추가와 인스타그램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Atellica® CI Analyzer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 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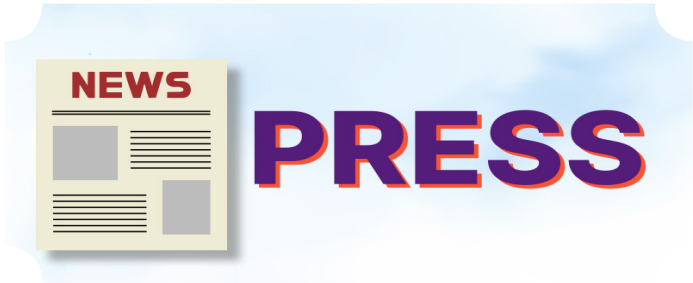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5월



 **매경헬스** 2025.05.12.

임상병리사는 현장에서 뛰는데, 법은 아직 걸음마

 **세이프탁임즈** 2025.05.15.

임상병리사협회 "국회·정부 지속적 협력 추진"

 **의학신문** 2025.05.15.

임상병리사협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체결

 **세이프탁임즈** 2025.05.15.

임상병리사협회 '학제일원화' 등 대선공약 제안
선대본 가동

 **厚生新報** 2025.05.16.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임상병리사 역할 강화·국민건강권 강화 공동 노력

 **매경헬스** 2025.05.16.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 정책협약 체결

 **매경헬스** 2025.05.16.

임상병리사협회, 제21대 대선 선거대책본부 출범

 **의학신문** 2025.05.16.

임상병리사협회, 대선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개최

 **厚生新報** 2025.05.19.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